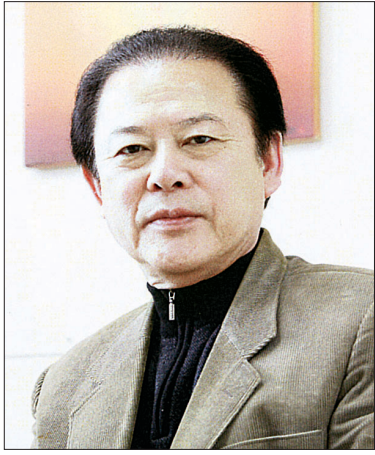


불일암의 사계 추억하며 무소유 정신 기린다

고현 교수, 법정 스님 5주기 추모전



불교에 심취해 있던 20대 후반의 미술학도였던 청년은 전람회에 부처님 수인과 발자국을 그린 작품을 연 2회 출품했다. 전람회장에서 만난 기독교인 선배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네 어디 아픈가? 작년에는 부처님 손바닥을 내놓더니 올해는 발바닥을 내놓네.” 그의 말에 청년은 화가 끓어올랐고 결국 다툼이 일어났다. 이후 청년은 결심했다. 작가 혼자 만족할 수 있는 작품을 넘어 불교미술의 대중화를 이루어야겠다고. 하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자신을 비난한 선배에 대한 미움이 짙게 깔려 있었다.

법정 스님은 어느날 그에게 물었다. “자네 아직도 그 선배가 미운가?” 청년은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자네 20대에 일찍이 한소식 했구만. 그 선배야말로 자네 눈을 키워준 선지식인이네. 미워하지 말게” 스님의 말씀에 청년의 마음속에는 일대의식의 전환이 일어났다. 그리고 청년은 결심했다. ‘불교 미술의 현대화, 불교디자인의 개척화’를 이루어야겠다고.

고현 교수(조선대 디자인학부·광고·향기롭게 광주 분부장)가 5월 18일~26일 길상사 설법전에서 법정 스님 5주기 추모 전시 ‘불일암 추억’을 연다.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 주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법정 스님 5주기 추모 전시로 30년 동안 스님을 모셔온 고현 교수의 추억을 담았다.

세 번 찾아가면 한번 정도 스님을 볼 수 있었지만 불일암을 찾은 것만으로 그의 삶에도 작품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인기척이 없으면 없는 대로 주인 없는 암자에서 한 두 시간씩 적요의 트랙을 서성거리곤 했다. 산죽이 바람을 만나 대잎끼리 부비는 소리가 지켜보고, 후박나무 가지 사이로 떠오른 창백한 달빛도 만져보고, 풍경 소리 아득하게 점을 찍으며 멀어져 가는 여

30년 법정 스님의 인연 화폭에

5월 18일~26일 길상사 설법전서

회고집 <법정을 추억하다>도 출간



‘불일암의 추억’을 작품 속에 담았다

운도 담아 오면서 갈 때마다 몇 점의 스케치는 꼭 견져오곤 했다.

그러한 화상들이 그대로 화폭으로 옮겨졌다. 늦은 봄 진달래 속에서 아득히 들려오는 빠꾸기 소리로, 물안개 호수 위에 그림자 같은 여름날의 조계산 자락으로, 텅 빈 암자의 트랙에 이리저리 날라가는 만추의 낙엽들로 표현 되고, 얼을 달 사이로 계절보다 앞서 떠나는 철새들의 여운도 함께 하면서, 차 한 잔의 향으로 사유의 물을 넓혀가던 침묵의 방으로 탄생되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법정 스님의 의자’를 소재로 ‘삼매향’과 ‘향월’은 법정 스님을 추억하기에 충분하다. “스님께서는 늘 머리 깎고 중이 되지 않았으면 목공 일을 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스님은 점심공양을 끝내고 나무를 가지고 푹딱거리며 무언가를 만들어 내곤 하셨죠. 두벌 잠 즉잠잠을 쫓기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이 의자도 스님이 장작을 가져다가 손수 만드셨죠. 늘 달맞이꽃 앞에 의자를 두고 앉아 감상하셨어요. 스님의 의자는 당신의 무소유적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불일암의 4계절을 작품속에 고스란히 담아내며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다시 한번 대중들에게 일깨워줄 것이다.

한편, 고현 교수는 이번 전시와 함께 30년 회고집 <법정을 추억하다>를 펴낸다. 30년 가까이 법정 스님을 모시면서 느낀 개인



‘법정 스님의 의자’를 소재로 한 ‘향월’은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일깨워준다.

적인 소회를 정리해 놓은 이 책은 스님의 시 오프닝과 함께 출판 기념회를 갖는다. 유지를 지키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작가의 마음을 담았다. 5월 18일 전

시 오프닝과 함께 출판 기념회를 갖는다. (02)741-4696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붉고 푸른 불전장엄의 美 한자리에

5월 15일~8월 16 불교중앙박물관서

조선중기 휴정대사는 금강산 도솔암의 불전장엄을 두고 ‘붉고 푸른 장엄의 광채가 아름답다’라는 기록을 <청허당집>에 남겼다. 불전 장엄구들의 아름다움을 되새겨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불교중앙박물관 2015년 특별전 ‘불전장엄(佛殿莊嚴)·붉고 푸른 장엄의 세계’ 전시가 5월 15일~8월 16일 열린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장엄이란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장식하는 것”이란 의미로, 불전을 장엄한다는 것은 불전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아름답고 엄숙하게 해준다. 그동안 불교공예품의 대표적인 불전장엄구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명되지 못한 채 단편적으로만 다루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전시는 불전을 장엄하는 다양한 장엄구들을 정리하고 의미를 새겨보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전시에서는 현존하는 조선 전기 유일한 불교 패인 안성 칠장사 원패, 뛰어난 자수 기법이 확인되는 순천 선암사 용문자수탁의 등 보물 7점, 전체 143점의 불전장엄구



조선전기 제작된 안성 칠장사 원패

안성칠장사 원패, 선암사 탁의 등

보물 7점 등 143점 성보 한자리에

련 성보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1부 ‘부처님의 모신 집, 불전(佛殿)’은 불전의 의미와 구성을 이해하고, 특히 삼단 체계와 관련된 불화들에 대해 살펴본다.

2부 ‘불세계를 장엄하다. 불전장엄구’에



불교중앙박물관 2015년 특별전 ‘불전장엄(佛殿莊嚴)·붉고 푸른 장엄의 세계’ 전시가 5월 15일~8월 16일 열린다. 순천선암사 용문자수탁의.

서는 불교패, 명경, 탁의 등 의례가 활발했던 조선시대 불전장엄구들을 보여준다. 이는 현재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당시의 미의식과 신앙생활을 반영하는 작품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부는 ‘불전의 확장, 야외 의식 범위’를 보여준다. 불·보살을 모시는 상단은 야외 의식용 불화인 괘불을 걸어 장엄을 더하고, 중단과 하단 역시 단을 설치한다. 혼령을 불러올 사자와 다섯 길을 관장하는 왕들을

위해 사자단(使者壇), 오로단(五路壇)을 따로 설치하기도 했다.

야외 의식의 공간도 다양하게 장엄되었는데, 다양한 여래, 사보살, 팔금강 등을 그린 불화들과 변(幡)들은 신앙의 대상일 뿐 아니라 도량을 의식의 장소로 만들기 위한 장엄의 용도로 이용되었다. 페나 불상 등을 야외 의식의 장소로 옮기기 위한 불연(佛龕)도 불전에서 도량으로 범회 공간을 확장하는 상징이다.(02)2011-1960 정혜숙 기자

불화, 세상과 만나 상처를 치유하다

박경귀 개인전 5월 26일까지 스페이스선+에서

박경귀의 개인전 ‘불이(EVERYTHING IS ONE)’가 스페이스선+에서 5월 26일까지 열린다. 작가는 현재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극단적인 세대 간 갈등, 이념적 대립 현상을 ‘집단적 상처’로 간주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 불교의 불이사상을 작품에 투영시켰다.

따라서 작가는 불화 속에 현실 문제의 정목을 시도 세상의 아픔을 함께한다. 특히, ‘링크부터-잊지 않오마’에서 부처님이 덮고 있는 모포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쓴 비통의 편지 글을 촘촘히 적어 장엄스런 문양으로 표현 집단적 상처의 치유를 시도하고 있다.

작가는 기존의 불화나 경전 속 인물보다는 현재 우리의 모습에 가까운 소박한 대상들을 작품으로 표현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현시대의 문제를 반영해 현대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내고자 한다. 지난 40년간 이어왔던 전통불화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불화가



박경귀의 ‘White Lotus in White Moon’ (부분도)

현실의 모습과 만나 진정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작가는 작품판매금액의 일부를 네팔 지진 피해자들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02)732-0732 정혜숙 기자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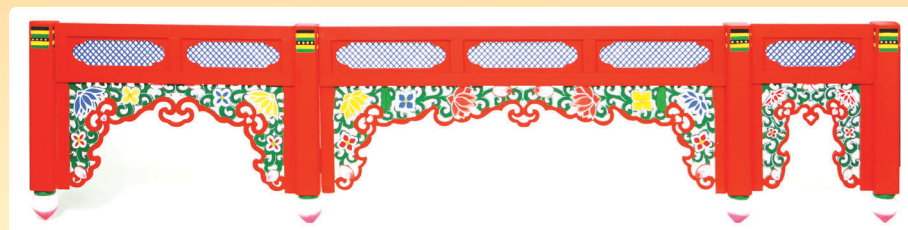
상담전화: 약사선원 010-2766-7677 한산 국립공원 올래길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

목각단 청운각

(간편조립)

법당장엄 5층 목탑

전통적인 연꽃 단청과 문창살문양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보다 장엄하게 설치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대웅전, 산신각, 포교당, 소법당 등의 천장에 누구나 간편하게 직접 조립할 수 있게 제작



■ 3자 : 1판

■ 2자 : 4판

■ 1자 : 4판

※ 단청문각 1세트 17자 (5m, 10cm) / 가격 : 90만원



■ 크리스탈사리탑 높이 45cm / 가로, 세로 20cm 가격 : 35만원



■ 크 기 : 높이 120cm / 하단 가로 45cm 보급가 : 900,000원 (배송비 포함) *내부 조형 등 있습니다.



고전상사

전화 : (031)442-3168 / 010-3772-3165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18-185번지 계좌번호 : 농협 356-1008-993643 (예금주 : 김판희)

모든 제품은 입금 후 우편 배송하여 드리며,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하여 드립니다.